

육군 오뚜기 장병 경로당 사물놀이 교육

한탄강댐 갈등관리준비단 본격적인 활동 시작

인근주민 찬·반 논란 조기 해결 여부에 초미의 관심

주민들 실력 쌓아 마을연주회 계획

포천시 일동면 경로당에서 매주 수요일 마다 사물놀이 가락이 울려 퍼지고 있다.

육군 오뚜기 부대 장병들이 지난 3월부터 매주 한 차례씩 일동면 지역 20여 마을회관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상으로 사물놀이 교육에 나선 것.

오뚜기 부대는 입대전 사물놀이를 한 경험이 있거나 부대에서 사물놀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장병들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에 나서게 했다.

장구채를 쥐고 손자뽀는 병사들에게 우리가락을 배우고 있는 최반녀 할머니(72. 일동면 사지2리)는 "훈련하기도 바쁜 군인들이 와서 노인들의 말벗도 되어 주고, 장구치는 법도 가르쳐 주어 너무 고맙다"며 "요즘 장구 배우는 덕분에 살맛이 난다"며 "실력이 나아지면 경로당에서 연주회도 열

것"이라고 즐거워했다. 사물놀이 지도에 나선 정인규



병장은 "어르신들이 우리 가락에 친숙해서인지 동료들보다 가락을 쉽게 익히고 열정적으로 배우는 모습이 존경스럽다"며 "특기를 살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큰 기쁨을 느낀다"고 밝혔다. 육군 오뚜기 부대 장병들은 농한기에는 주1회, 농번기에는 월1회 교육에 나선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il.net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 한탄강댐 갈등관리준비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 3년째 계속되고 있는 한탄강댐 찬·반 논란이 조기 해결 될 수 있을지 포천시와 연천군 그리고 철원군 지역주민의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갈등관리준비단은 내달 1일 연천군 관인면민회관에서 한탄강댐 건설 관련 이해 당사자인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탄강댐 조정 프로세스 설명회를 갖고 주민들에게 정부와 대화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갈등관리준비단 실무진은 이를 위해 이날 오전 연천군정을 방문해 이런 계획을 설명했다.

갈등관리준비단은 설명회에서 다음달 중으로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가진 주민대표와 건교부 그리고 환경단체들이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마련하는 조속 일정 등을 밝힐 예정이다.

갈등관리준비단은 또 정기 회의를 구성하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합의안이 마련되면 찬성이든 반대든 최종 방침으로 확정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2의 동강 사태가 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조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갈등관리준비단은 지난해말 강원도 관광진흥대책 보고회의에서 강원도회의의 '한탄강댐 건설 재

검토'를 요청받은 노무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2월 구성됐으며 정진승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이 단장에 선임돼 그동안 준비과정을 거쳐 왔다.

한편 정부는 입진강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 1999년부터 연천군 연천읍 고분리와 포천시 관인면

중리 일대에 담수량 3억1천500만t 규모(높이 85m, 길이 705m)의 한탄강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 연천·포천, 강원 철원 주민들이 백지화를 요구하는 등 찬·반 논란이 계속되면서 지금까지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il.net

포천천에 다슬기 방류

자연보호 포천시협의회 생태계 복원 위해



자연보호 포천시협의회는 지난 27일, 생태계보호를 위해 포천천 일원에 다슬기 75kg을 방류했다.

자연보호 포천시협의회 류금열 회장은 >포천천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하천의 수질을 정화하는

물론 >반딧불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한 다슬기 방류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슬기 방류가 생태계 복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반딧불이 유충과 민물고기의 먹이가 되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자연보호지도위원 등 30여명은 포천의 산자수려한 자연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내 고장을 사랑하는 주민의식으로 맑은 물과 자연환경 보전에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했다.

정병길 기자 jpk61@hanmir.com

포천쌀연구회 가공센터 준공

색채선별기 등 최첨단장비 갖춰

고품질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도움



관인면 탄동리 583번지에 세워진 포천쌀연구회 가공센터 준공식이 29일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포천쌀연구회(회장 조문희) 명정철 영농조합법인 회원들과 전세창 경기도농업기술원장, 쌀 생산관련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 보였다.

총 7억5천200여만원의 자금이 투입된 포천쌀연구회 가공센터는 쌀 가공센터 166평, 벼저온저장 시스템 30평 등 총 853평의 면적에 조성됐으며 30톤형 사이로 3개동 등이 설치됐다.

가공센터는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색채선별기와 미질조정기 등 최첨단장비를 고

루 갖추고 1시간당 2.5t을 도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특히 벼 저온저장시설은 15℃ 이하 저장과 함께 습도가 70%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항상 완전미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쌀연구회 관계자는 "이번 가공센터 준공을 계기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과 저장, 가공 유통체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증재배를 통해 지역 적응시험을 마친 고품질 품종, 일본 고시히카리벼 재배면적을 확대해 포천쌀 맛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포천소방서 테러대비 합동 소방훈련

산정호수 한화콘도에서 위기대응능력 제고

포천소방서(서장 이대열)는 지난 28일 영북면 산정리 454-44번지 산정호수 한화콘도에서 민·관·군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직장자위소방대,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 80여명의 인원과 소방차 7대, 제독차2대가 동원돼 직장자위소방대의 초기대처능력, 유관기관의 신속한대응 등 협조체계, 소방력의 신속한 출동 및 인명구조와 대형화재에 대한 사고수습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이에따른 주요훈련은 콘도3층 객실에 신원 미상자가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 인근객실로 연소

확대 상황에서 지나가던 차량에서 환색가투가 든 비닐봉지를 차 밖으로 던지자 화재를 피해서 밖으로 대피하던 투숙객들이 구토를 하면서 쓰러져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가상을 설정하고 직장자위소방대의 119신고 및 보호장비착용 자체 인명구조활동과 초기화재진화활동, 유관기관신속지원 대응, 오염지역탐지 및 경계설정 로프설치, 군부대 제독차량을 이용한 독가스 제거, 화재진압과 구조대원 인명검색 및 수습활동단계로 나누어서 실시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il.net

포천시 업무유공자 표창수여

최원일 서장, 주민이 편안한 치안환경 조성 강조

포천경찰서(서장 최원일)는 지난 21일 서장실에서 각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실적 우수 경찰관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경사 이재택 등 3명은 중요범인 검거유공으로, 정경은 중요범인 훈시를 통해 '자신의 맡은바 분야에서 지속적인 노력 경주로 주민이 편안한 치안환경 속에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무계 경장 김순식 등 5명은 춘계 청사 환경정비 및 쾌

적한 사무관리 조성에 숭선수범한 공로로, 포천지구대 순경 정영진은 경찰서 홈페이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각각 경찰서장 표창장 및 부상품을 수여했다.

최원일 서장은 훈시를 통해 '자신의 맡은바 분야에서 지속적인 노력 경주로 주민이 편안한 치안환경 속에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병길기자 jpk61@hanmir.com

사건 || 사고

변심에인 성기 절단 40대 중국여성 영장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애인의 성기를 절단한 혐의(중상해)로 중국인 장모씨(44.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월15일 오후 8시40분경 양주 광적면 S섬유공장 기숙사에서 애인인 최모씨(33.조선족)의 성기를 흉기로 자른 뒤 도주한 혐의다.

장씨는 S공장 직원 최씨가 "다른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며 결별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최씨에게 술을 먹여 잠든 채 한 뒤 범행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투자주식금 날린 택시기사 아내에게 사실 알려질까 두려워

양주경찰서는 투자주식으로 거액을 탕진한 사실이 아내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 해 택시강도 자작극을 한 김모(49.택시기사)씨를 붙잡아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9일 오후 1시10분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택시강도를 당해 투자주식으로 번돈 1300만원을 빼앗기고 트렁크에 갇혀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김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가족들은 이를 경찰에 신고해 사실 확인 결과 김씨의 증언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아내에게 숨긴 400만원 카드대출을 받아 투자주식으로 탕진한 뒤 이런 사실을 들킨다고 자작극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개전투 훈련장서 훈련용 뇌관 터져 훈련중인 예비군 4명 부상

29일 오후 2시20분경 양주시 광적면 육군 00부대 신병교육대 각개전투 훈련장에서 훈련용 전지 뇌관이 터졌다.

이 사고로 예비군 훈련에 참가했던 정모(27)씨와 서모(27)씨 등 4명이 팔과 다리 및 얼굴에 큰 상처를 입어 정씨 등 2명은 육군 수도통합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서씨 등 2명은 인근 덕정병원으로 후송돼 치료중이다.

부대측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예비군 훈련차 부대에 집결해 군부대측의 작전통제를 받던 중 각개전투 교장에서 주운 훈련용 전지 뇌관에 건전지를 연결 뇌관이 터지면서 인근에 있던 예비군들과 함께 파편을 맞아 부상했다.

부대측은 사고발생 즉시 육군 모 의무대로 부상자들을 후송한 뒤 응급치료 후 부상 정도에 따라 상급병원으로 분산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각개전투 훈련장에는 100여명의 예비군들이 지상협동 훈련에 참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포장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Merit 있는 제품 '대봉메리트'가 있습니다



- 1983년 : 사명회학 설립
- 1985년 : 남대문시장 대리점 OPEN
- 1990년 : 동대문시장 대리점 OPEN
- 1994년 : 대봉 메리트 확장 이전(포천 공장)
- 1996년 : 야구르트(주) 비닐 백 납품개시
- 1999년 : 농대문 밀리요리 납품개시
- 1999년 : 품질 보증 지정업체 선정(국민)
- 2000년 : 메리트 쌀업(주) (동아쇼핑백 우리 2공장) 설립
- 2001년 : 농협 하나로 쇼핑백 납품개시
- 2001년 : 메리트 비닐포장 대리점 OPEN
- 2002년 : 대일 비닐포장 대리점 OPEN

포장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획에서 디자인, 인쇄, 가공, 완제품 납품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원-라인(One-Line)으로 처리하여 귀사의 제품을 보다 안전하고 품위있게 유지시켜 드리겠습니다.

